

## 전남 농·공산품 싱가포르·말레이시아서 인기몰이

### 시장개척단 김·뷰티 등 15개 기업 참여해 201만달러 수출계약

전남도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24일까지 5일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201만 달러 수출계약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주요국 긴축재정에 따른 고물가, 고금리 등 국제적 경기침체 위기 속에서 전남 수출기업의 수출을 확대하고 신시장 개척을 위해 농수산물품 기업 9개 사와 케이(K)-뷰티 등 공산품 기업 6개 사를 파견했다.

싱가포르는 기업 친화적 환경, 시장 다양성, 낮은 진입장벽 등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시장이다. 또 말레이시아는 동남아 석유·플라스틱 산업의 중심지로 중산층이 탄탄하다. 이슬람 시장 관문으로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훌륭한 시험 무대다.

이번 시장개척단에 참여한 중소기업 15개 사는 119개 현지 수입상과 1대1 상담을 통해 3천829만 달

러 수출상당과 201만 달러 수출계약을 했다.

특히 국내 김 전문 기업인 (주)해농은 싱가포르에서 30만 달러, 말레이시아에서 50만 달러의 수출 업무협약을 했다. 말레이시아 수출 상담회에선 광어죽, 전복죽 생산기업인 (유)해성인터내셔널이 100만 달러, 발전설비용 신축이음관 제조 기업인 (주)디엠티가 10만 달러, 유기질 비료를 제조하는 봉강친환경이 8만 달러, 리사이클링 조미김과 미역을 생산하는 해산이 3만 달러 수출 업무협약을 해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밖에 보향다원이 유기농 녹차, (주)가보팍스가 꿀 유자차 등 음료, (주)골든힐이 조미김 등 천연조미료, (주)엔피케이가 효소 등 건강기능식품, 대륙식품(주)이 조미김 자반, 완도만이 미역·다시마 등 해조

류, 록바이오테이 기초화장품, (주)하백이 배수펌프, (유)호인이 네일 제품, (주)제이비엔아가 브레이크 패드를 출품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했다.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전남 수출기업의 수출 확대와 신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거둬 기쁘다”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시장개척단 성공은 지역 기업의 세계 경쟁력과 품질을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되는 세계적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움에서도 우리 중소기업이 세계 시장에 활발히 진출하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는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와 함께 이번 시장개척단의 성과가 계속 이어지도록 정책자금, 애로사항 청취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서용운 기자



전남도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24일까지 5일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201만 달러 수출계약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주요국 긴축재정에 따른 고물가, 고금리 등 국제적 경기침체 위기 속에서 전남 수출기업의 수출을 확대하고 신시장 개척을 위해 농수산물품 기업 9개 사와 케이(K)-뷰티 등 공산품 기업 6개 사를 파견했다. /전남도 제공

## 광주시, 자원회수시설 기본구상용역 중간보고회

광주시(시장 강기정)는 오는 29일 오후 3시 김대중컨벤션센터(208호)에서 자원회수시설(소각)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광주광역시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체계 구축 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광주시가 2030년부터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상황에 대비하고 지역 내 자체 처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용역은 소각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을 검토하는 첫 단계인 기본구상 용역으로, 지난해 11월 시작됐다.

자원회수시설(소각)은 여가공간

등을 함께 조성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오염물질 최소화, 에너지 활용 극대화 등을 통해 기피시설이 아닌 환경 친화형시설로 구축된다.

보고회는 지난 2월 실시한 소각 시설 관련 설문조사(광주on)에서 ‘투명한 절차 공개 및 소통’을 원하는 의견을 반영하고, 자원회수시설(소각) 추진계획(안)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오픈형으로 열린다. 이 자리에서 ▲자원회수시설 설치계획 수립을 위한 2030년 기준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시설규모 ▲부지면적과 주변지역 주민지원계획 ▲시민이 우려하는 환경오염물질 관리계획 ▲향후 입지선정 절차

등 설명과 질의 응답을 진행한다. 광주시는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시설계획을 확정하고, 4월 중에 자원회수시설(소각) 입지선정 계획을 결정 공고할 예정이다.

공모 결과에 따라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최종 입지를 선정하고, 기본계획 등 법적절차를 추진한다.

손인규 시 자원순환과장은 “자원회수시설(소각) 신규 건립은 지역의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역점사업이다”며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 제네시스 플래그십 세단 ‘2023 G90’ 출시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연식 변경 모델 ‘2023 G90’를 지난 24일 출시했다.

2023 G90는 다양한 안전·편의 사양을 기본화하는 등 상품성을 향상 시켰다.

제네시스는 2023 G90의 일반 모델에 기존 롱휠베이스 모델에만 탑재됐던 가솔린 3.5 터보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 엔진을 추가해 보다 여유로운 동력성능을 제공한다.

가솔린 3.5 터보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 엔진은 낮은 엔진 회전(rpm) 영역대에서 모터를 통해 압축시킨 공기를 한 번 더 압축시켜 공급함으로써 3.5 터보 엔진 대비 최대 토크 시점을 앞당겨 저·중속

에서의 가속 응답성을 높여준다.

제네시스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광각 카메라 기반 주차 및 사선 주차 포함) ▲주차 충돌방지 보조(전/측/후방)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앞좌석 프리 액티브 시트벨트 등 다양한 안전·편의 사양으로 구성된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를 기본화해 상품성을 강화했다.

또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디스플레이에서 뒷좌석 도어를 자동으로 닫을 수 있게 해 이지 클로즈 기능의 사용성을 강화했으며, 엔진 진동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이를 소리로 변환해 더욱 실감나는 엔진

사운드를 제공하는 ESEV(Engine Sound by Engine Vibration)를 새롭게 적용했다. (※단, ESEV는 밴업 옵션 사운드 패키지 선택 시 적용)

이외에도 일반 모델에 신규 디자인의 21인치 휠을 선택 사양으로 추가하고, 기존 2가지로 운영했던 추천 사양 조합을 ▲파플러 컬렉션 ▲프리미엄 컬렉션 ▲프레스티지 컬렉션 등 3가지로 확대해 고객별로 더욱 세분화된 맞춤 사양 조합을 제공한다. (※단, 21인치 휠은 가솔린 3.5 터보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 엔진 선택 시 적용 가능)

2023 G90의 판매 가격은 일반 모델 9천407만원, 롱휠베이스 모델 1억 6천757만원이다. (※ 개별소비세 3.5% 기준) /이문수 기자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 그린맨 파워

나이 들어도 자신있는 남자 Project

살의 활력을 찾자!  
남성의 자신있는 삶!

기력이 없는 갱년기 남성 건강에 활력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MR-10과 소팔메토, 아연의 복합기능성 제품으로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